

## Focus

1. 한우 경진대회
2. 2011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
3. 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
4. 마장동 업계 상황은?

## 파워인터뷰

“유전자 판별로 둔갑판매 잡고,  
암수동시개량으로 경쟁력 높인다”  
박현출 농촌진흥청장

## 기획특집

결핵병 및 브루셀라 근절대책 및  
도태 장려금 지급 기준 개정

한우를 귀한 만큼 정성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데  
더없이 좋은 선물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우리 한우로 사랑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한우를  
사랑한다!



# Contents June 2012

- 02 Focus 1  
한우 경진대회
- 03 Focus 2  
2011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
- 04~05 Information  
한우자조금 설문조사
- 06~08 기획특집  
결핵병 및 브루셀라 근절대책 및  
도태 장려금 지급 기준 개정
- 09 파워인터뷰  
박현출 농촌진흥청장
- 10 Focus 3  
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
- 11 Focus 4  
마장동 업계 상황은?
- 12~13 Information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 14 한우전망
- 15 Information  
애독자 코너

## 전국한우경진대회 16년만에 다시 개막

10월말 안성팜랜드서 17회대회 열려



전국한우경진대회가 16년 만에 부활한다. 올해 행사는 제17회 대회로 1996년 제16회 대회를 잇는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3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열린 전국한우사업 조합장협의회에서 제17회 전국한우경진대회 개최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경진대회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한국종축개량협회)가 주관한다. 행사 예정일은 11월부터 FMD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고 2012년 제5회 한우의 날(11월 1일)과 연계해 10월 30일과 31일 개최된다.

개최장소는 농협안성팜랜드 아그리움으로 확정됐으며, 출품대상은 총 6개 부문 208농가, 출품두수는 344두로 계획돼 있다.

부문별 출품대상은 ▲개량 개체부문은 송아지(암소), 미경산우, 경산우 등 3개 분야로 나뉘 각각 24농가 24두가 출품된다. 출품자격은 8개 도별 품평회에서 상위 입상축 각 3두씩이다. 개량 농장부문은 일반농가와 육종농가 16호 48두가 출품된다. 도별 2호 이내로 농가당 3세대(암송아지, 미경산우, 경산우)를 출품하게 된다. ▲능력(육질) 거세우 고급육부문 출품은 104농가 208두로 종축개량협회의 고급육 품평회가 경진대회에 포함됐다. 고급육 생산 어미소 부문은 16호 16두로 역시 고급육 품평회와 연계돼 진행된다.

출품 우수축 시상은 6개 부문 29농가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농식품부장관상, 농진청장상, 농협중앙회장상, 종축개량협회장상, 전국한우협회장상 등이 주어지며, 부문별 수상실적에 따라 지자체 3곳도 시상한다. 총 시상금은 5억8천500만원이다.

한우경진대회 전국대회 출품을 위해선 도별로 평가대회를 거쳐 출품우를 전국대회 1개월 전에 결정해야 한다.

### 한우 수급조절 농가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하반기 한우가격 전망이  
밝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럴때 일수록  
농가 모두의 적극적 참여만이  
하반기 가격 폭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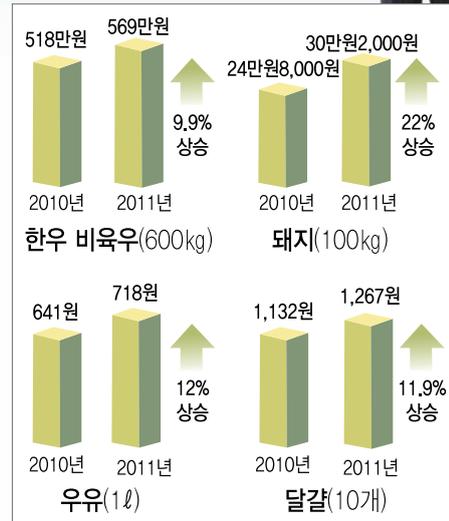
# 소 1마리당 1백만원 넘게 적자났다

## 통계청, 2011년 축산물생산비 조사결과



지난 해 사료가격과 인건비 등이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쇠고기값은 급락하면서 한우농가의 수익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지난 30일 '2011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를 보면 7개 축산물 생산비가 사료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전년보다 모두 증가했다. 축종별로 한우 번식우(송아지) 13.7%, 한우 비육우 9.9%, 육우 6.7%, 젖소 12.0%, 돼지 22.0%, 산란계 11.9%, 육계 2.7% 생산비가 상승했다. 이 중 생산비가 가장 오른 돼지의 경우 사료비상승의 여파가 컸으나 경락가격이 47.1% 급등해 조수입이 늘어난 반면, 한우의 경우 조수입도 급락해 한우농가의 재정난이 심각하다. 한우 암송아지 4~5개월령 기준으로 산지가격이 '10년도에는 217만4천 원이었지만 작년에는 144만9천원으로 33.3%가 급락해 107만1천원 적자를 보았고, 비육우는 '10년 kg당 16,546원이었지만 작년에는 13,550 원으로 18.1% 하락해 116만6천원의 적자를 보였다.

축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 현황



축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 현황

구 분	'09		'10(A)		'11(B)		전년 대비			
	경영비	생산비	경영비	생산비	경영비	생산비	증감(B-A)		증감률(%)	
							경영비	생산비	경영비	생산비
송아지 (천원/마리)	1,689	2,737	1,664	2,692	1,964	3,061	300	369	18.0	13.7
한우비육우 (천원/600kg)	4,383	5,416	4,143	5,180	4,554	5,691	411	511	9.9	9.9

축산물 수익성 현황

구 분	'09			'10			'11		
	조수입	소득	순수익	조수입	소득	순수익	조수입	소득	순수익
한우번식우 (천원/마리)	1,595	264	-531	1,731	427	-365	1,175	-276	-1,071
한우비육우 (천원/마리)	6,245	1,348	198	6,806	1,948	739	5,658	189	-1,166

※ 소득 = 조수입 - 경영비, 순수익 = 조수입 - 생산비

이로 인해 한우농가들은 경영난이 악화되어 농장처분을 검토하는 등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 최부규 한우협회 흥천군 지부장은 “3년 전만 해도 72개월 미만 450kg 암소가 400~500만원선에 거래됐는데 최근에는 250~300만원 받기도 힘들다. 사료값, 인건비, 접종비 등은 매년 눈에 띄게 상승하는 반면 소를 출하해도 수중에 남는 돈이 한푼도 없다. 부채로 인한 한우농가들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가격보존제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경현 한우협회 강원도지회장은 “현재 소를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다. 광우병 등으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해야 하며 한우 사육두수를 소비적정선으로 줄여야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 집에서는 한우, 밖에서는 외국산 먹는다

한우산업모니터링  
결과발표...  
한우, 가장 만족하지만  
가장 의심스럽다



한우 사육두수 증가 및 송아지 가격 하락에 따른 한우 파동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 발효로 인한 쇠고기 수입량의 증가세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우자조금은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서 국내 외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의식 평가와 전망, 그리고 변화추세에 대한 유통업자의 평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GS&J인스티튜트에 의뢰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11년 12월부터 '12년 1월 17일 까지 한우고기 유통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이번 조사에 참가한 소비자는 7대 광역시 612명이며, 유통업체는 중도매업체, 요식업체, 가공업체, 정육업체 등 22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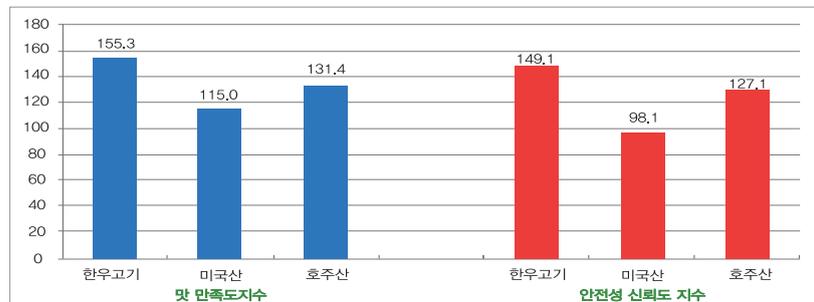
##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

### 한우고기 맛의 만족도 최고, 호주산 뒤이어

한우고기의 맛에 대한 한우고기 구매자의 만족도지수는 155.3이고,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지수는 149.1로 나타나 만족도와 신뢰도가 매우 높았다. 만족도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을수록 만족하는 사람이 불만족인 사람보다 많고, 100이하는 만족하는 사람보다 불만족인 사람이 많음을 의미한다(이하 지수는 같은 의미이다).

이에 비해 미국산 쇠고기의 만족도 지수는 115.0, 호주산은 131.4로 나타나 한우고기 구매자의 만족도에는 미치지 못하나 호주산의 경우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평가 및 의향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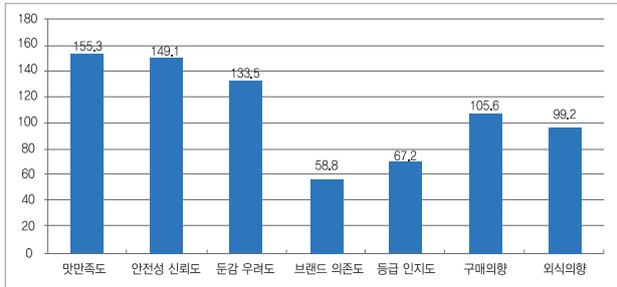
### 한우고기 둔갑판매 우려, 브랜드 모른다

한우고기 구매자의 둔갑을 우려하는 둔갑우려도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33.5로 나타나 둔갑을 우려하는 소비자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우고기 구매 시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정부와 한우 업계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한우고기 브랜드 인지도는 황성한우 이외에는 미미했고, 브랜드 의존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58.8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의 브랜드 육성정책이 많은 브랜드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으나 실효성은 거의 없었음을 의미하므로, 정부는 물론 각 브랜드 주체는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편 한우고기 구매자의 품질등급 인지도지수는 67.2%를 기록해 소비자들이 품질등급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맛에 대한 만족도 및 안전성 신뢰도 지수 비교



### 쇠고기 원산지별 구매실태와 대체구매의향

#### 한우 충성도 높지만 외식할 때는 다르다

조사기간동안 한우고기를 구매한 소비자는 전체응답자의 81.5%였고, 그 중 47.9%는 수입쇠고기와 혼합하여 구매했다. 이는 한우고기 구매자의 절반은 수입쇠고기로 대체 구매할 잠재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미국산 구매자는 6.9% 이외에는 모두 혼합 구매했으며, 호주산 구매자도 16.9% 이외에는 다른 원산지 쇠고기로 대체 구매할 잠재력이 매우 높았다.

또한 외식의 경우에는 수입쇠고기를 먹는 소비자가 83.6%나 되어 수입쇠고기 기피현상이 현저히 낮았다. 이로써 외식 시 한우와 수입쇠고기 간의 가격차이가 매우 커서 기피의향이 억제되기 때문으로 추측되나, 외식 비중이 증가할수록 대체 소비가 늘어날 것임을 의미하므로 외식시장 장악이 한우산업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우가격 더 오르면 다른 고기먹겠다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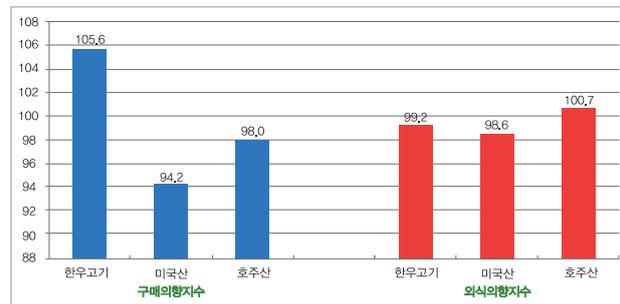
한우고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입쇠고기로 대체 구매하지 않겠다는 한우고기 구매자는 19.4%이고, 한우고기 구매를 줄이고 수입쇠고기 구매를 더 늘리겠다는 소비자가 46.1%, 돼지고기를 더 구매하겠다는 소비자가 34.1%였다. 결과적으로 한우고기 가격 상승 시 기존 한우고기 소비자의 절반은 한우고기를 줄이는 대신 수입쇠고기를 더 구매하고, 1/3은 돼지고기를 더 구매할 것임을 의미하므로 한우고기 가격의 안정화가 한우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쇠고기 구매의향 및 전망

#### 한우가격 하락으로 한우구매 늘어났다

소비자의 향후 구매의향을 나타내는 구매의향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한우고기는 105.6, 미국산은 94.2, 호주산은 98.0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만으로는 소비자가 향후 한우고기 구매는 늘리고 수입쇠고기는 줄일 의향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이번 수치는 선호도 변화 때문이라기보다 최근 한우고기 가격하락으로 대체구매의향이 높아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의 구매의향지수 비교



외식에서는 한우고기 구매의향이 99.2, 미국산이 98.6, 호주산이 100.7로 나타나, 구매의향이 전체적으로 높지 않았으나 가정구매보다 외식할 때 수입쇠고기 구매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외식에서 대체 구매의향이 높았던 결과와 연계시킨다면 수입쇠고기의 소비증가는 외식이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외식시장 방어가 한우산업에 중요한 과제이다.

### 유통, 요식업체가 바라보는 한우산업 전망

#### 가정에서 양지구매 많아질 것이다

향후 판매전망에 대한 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한우고기는 87, 수입쇠고기는 95~97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쇠고기 판매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 한우고기에 대한 판매 전망을 더욱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통업체는 원산지표시제 이행지수가 180을 넘어 작년 170에 비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중도매업체와 식육포장업체는 한우고기 부위 중 앞으로 수요가 가장 증가할 부위가 갈비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고 있는 소매 정육점업체는 갈비 수요가 감소할 것이며, 양지에 대한 수요가 가장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소 브루셀라병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 근절 위한 방역강화 대책 필요



## 소 브루셀라 발생현황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 수입된 젖소에서 처음 발견되어 주로 젖소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2000년도를 전후해 한육우의 발생이 보고되기 시작해 2004년 6월부터 우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소에 대한 브루셀라병 검진증명서 휴대제도를 시행하면서 젖소는 물론 한육우를 포함한 모든 축종에 대하여 검사를 시작하게 됐다.

그 후 한육우에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5년 17천690두(1.98%), 2006년 25천454두(2.18%)로 최고의 발생률을 보였으며 '07년 11천547두(1.07%) → '08년 8천409두(0.86%) → '09년 6천571두(0.53%) → '10년 4천822두(0.35%) → '11년 4천70두(0.26%)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 소 브루셀라병 대응방안

현재까지는 각 시도 브루셀라병 검사기관 및 농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발생률이 급감하고 있어 단계별 브루셀라 근절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 하지만 근절에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브루셀라병 양성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해 브루셀라균이 확인된 농장은 양성우(송아지 포함)를 살처분하고 나머지 모든 동거소를 도태할 수 있는 방역 강화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유산된 소에 대해 전국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아울러 자진 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는 지적이다.

## 소 브루셀라 병이란?

### 소 브루셀라병은?

브루셀라 균에 의한 소의 전염병으로 유산, 불임 등이 특징이다.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 인수공통전염병이다.

### ▲증상

보통 3~6주의 잠복기간이 있고, 길게는 6~10개월간 지속될 수 있다. 보통 유산이 있고 나서야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산은 임신말기에 집중되며 후산정체가 따른다. 유산 후 일시적 또는 영구 불임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 ▲발생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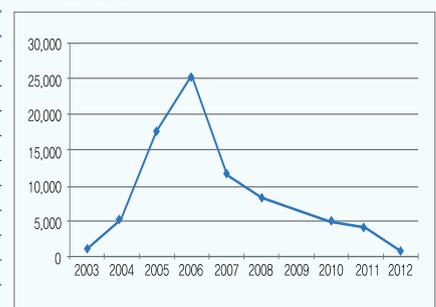
감염개체와 접촉으로 농장내의 개체간에 전염되며, 감염개체의 불법적인 판매, 이동 등에 의해 타 농장에 전파된다. 감염여부도 금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조사해, 현황 파악 및 대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소 브루셀라 지역별 발생현황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계
2003				24				54	21	144	224	444	81	72	24		1,088
2004				22		1	405	558	739	801	986	284	244	811	521	11	5,383
2005		10	30	15	2	32	1,199	1,343	1,336	1,938	2,671	1,042	2,832	3,553	1,687		17,690
2006		17	253	89	155	1	796	1,289	998	3,039	2,597	1,572	4,135	7,429	3,084		25,454
2007		3	189	14	78	18	411	575	419	1,260	1,349	864	1,465	3,116	1,786		11,547
2008		8	216	12	86	9	385	301	168	448	1,221	1,056	1,221	2,078	1,200		8,409
2009		13	173	17	9		194	163	136	303	865	921	889	1,765	1,123		6,571
2010		8	136	17	7	7	209	211	41	207	760	593	501	1,490	635		4,822
2011		2	95	1	11		55	355	47	167	417	681	691	974	574		4,070
2012			6		1			13	32	73	97	180	44	158	183		787
합계		61	1,098	211	349	68	3,654	4,862	3,937	8,380	11,187	7,637	12,103	21,446	10,817	11	85,82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공

## 연도별 발생두수



2012년은 4월까지

## 소 결핵병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발생두수 증가하는 상황, 효율적 검사방안 및 검사대상 확대 절실

### 소 결핵병 발생현황

소 결핵병의 근절을 위하여 젖소는 매년 전두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우는 살처분 정책을 추진하여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방역비용 등으로 경제적 피해가 큰 상황이다. 젖소에서의 결핵병 발생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한우는 2007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젖소 : '05년 708두 → '07년 611두 → '11년 574두
- 한우 : '05년 18두 → '07년 228두 → '11년 1천113두

한우에서 결핵발생이 급격히 증가함에도 방역인력이 부족하고, 결핵의 검사방법 특성상 매우 번거롭다는 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두수 검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2009년부터 한육우를 대상으로 ELISA 키트를 이용한 결핵병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 중이지만 양성우 색출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 소 결핵병 대응방안

향후 결핵병의 검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결핵병 진단법의 개선이 검토되고 있다. 영국 등 결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사용 중인 감마인터페론 진단키트를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 완료해 현재 현장 적용을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국내 상황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향후 정책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한우 결핵검진법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결핵병 검진 대상 두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우의 경우 도축되는 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결핵에 감염된 양성우 검출시 해당농장에 대한 역추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기검진 두수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결핵의 매개동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 서식 야생동물에 대한 결핵병 감염여부도 금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조사해, 현황 파악 및 대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소 결핵병이란?

#### 소 결핵병은?

결핵균에 의한 소의 만성 소모성 전염병으로 인수공통이다.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이다.

#### ▲ 증상

만성 소모성질병으로 잠복기간이 길며, 증상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도축될 때까지 감염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미열, 식욕부진, 체중감소, 쇠약, 간헐적인 마른기침, 체표면 림프절의 종대 등이 관찰되기도 한다.

#### ▲ 발생원인

국내에 오랫동안 발생되고 있는 전염병으로 감염개체와의 접촉으로 농장내의 개체 간에 전염되며, 감염개체의 불법적인 판매, 이동 등에 의해 타 농장에 전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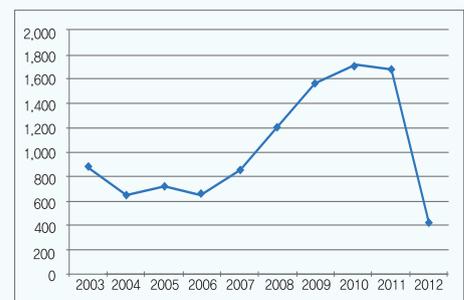
### 소 결핵병 지역별 발생현황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계
2003				1			47	194	71	48	291	75	37	27	73		864
2004				9				323	3	23	186	24	41	34	6		649
2005				1			4	260	9	20	179	51	126	19	57		726
2006								186	6	19	88	32	69	10	246		656
2007	7			4			7	245	4	51	201	33	101	49	137		839
2008	7			3	3		1	273	36	50	218	166	163	152	122		1,194
2009			45	2			5	269	51	20	426	368	127	137	117		1,567
2010	8		33	17	1	70	64	219	118	77	361	131	310	187	105	4	1,705
2011	7		10	2	5		14	139	80	47	434	395	199	250	105		1,687
2012			1	2	3		7	60	13	27	120	25	60	75	29		422
합계	29		89	41	12	70	149	2,168	391	382	2,504	1,300	1,233	940	997	4	10,309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질병방역부 역학조사과 제공

2012년은 4월까지

### 연도별 발생두수



#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 도태장려금 지급기준 개정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으로 도태한 가축에 지급되는 도태장려금의 지급기준이 개정됐다. 농림수산물부는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도태장려금 지급기준 개정안을 포함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을 지난 6월 20일 개정고시 했다.

※도태장려금은 도태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당해 권고대상 가축을 출하하여 도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도태장려금 평가액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등과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에 감염된 소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살처분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이 질병에는 감염되지 않았지만 감염이 의심되거나 동거한 소에 대해서도 신속한 도태를 위해 도태장려금이 지급된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과 축산물도매시장 판매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함으로써 도태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산지가격 기준

해당가축의 산지가격은 【표 1】의 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유사산 태이는 도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도태장려금 산지가격 기준 적용

### 축산물도매시장 판매대금 기준

해당 가축을 출하·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한 정산서에 기재된 개체별 판매대금으로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가축을 출하·도축·경매·등급판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은 판매대금에서 제외한다.

### 두수 및 체중적용 방법

실측한 두수 및 체중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역상 긴급한 살처분이 필요하여 체중을 실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측한 개체의 월령별(암·수 구분) 평균체중을 감안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며 실측한 개체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직전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산정시 적용했던 월령별 평균체중을 적용한다.

【표 1】 소 결핵 및 브루셀라 산지가격 산정기준(붉은색은 개정사항)

구분	내용	비고
유사산태아	송아지 4~5개월령의 암수평균가격 (농협조사 산지가격)×유사산 발생 당시 임신 개월수 ÷14.5개월	
송아지 (3개월이하)	(송아지월령+10개월(임신기간))÷14.5개월×송아지4~5개월령 가격	암수 구분
송아지 (4~5개월)	농협조사 산지가격	암수 구분
송아지 (6~7개월)	농협조사 산지가격	암수 구분
350kg 이하	농협조사가격(송아지6~7개월)+(당해 가축의 체중-송아지 표준 발육체중)×kg당 가격]	암수 구분
350~600kg 이하	농협조사가격(350kg)+(당해 가축의 체중350)×kg당 가격]	암수 구분
600kg초과	농협조사가격(600kg)+(당해 가축의 체중600)×kg당 가격]	암수 구분
임신우	(체중구분별 한우 암소가격) +(송아지 4~5개월령의 암수 평균가격 ;농협조사산지가격×살처분 당시 임신 개월수 ÷14.5개월)	태아가격은 개복확인 또는 임신진단서가 있는 경우 100%, 인공수정증명서만 있는 경우 70%
거세우	체중구분별 한우 수소가격÷1.2	
월령에 따른 평가액 상한선 조정	60개월령까지는 평가상한가격의 100%적용 61~119개월령은 매1개월 증가 시 마다 평가상한가격의 1%씩 감액 적용 120개월령 이상은 평가상한 가격의 40% 적용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www.nonghyup.com)하는 산지 가격정보에 의한 도태실시 당일의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도태실시 당일의 시·도별 평균가격이 조사·게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일의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 및 기타 광역, 특별자치시의 경우 해당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는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유전자 판별로 둔갑판매 잡고, 암수동시개량으로 경쟁력 높인다.

농식품부 축산국장 출신으로 농촌진흥청장에 오른 박현출 청장으로부터 한우산업과 관련된 농진청의 역할과 한우산업이 가야할 길에 대해 들어 봤다.



▲박현출 농촌진흥청장

### 농촌진흥청은 선진 기술을 보급해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여해 왔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다면?

값싼 수입쇠고기 등이 한우고기로 둔갑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과학적인 판별기술 필요했다. 농촌진흥청은 '00년 한우와 젓소고기 판별기술을 개발했고, '06년에는 한우와 수입쇠고기의 판별기술을 개발했다. 현재 이 기술들은 농관원(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기술 이전하여 단속활동에 이용하고 있다.

한우 사료비 절감과 육질개선을 위하여 TMR 사료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부산물 활용 한우사료 배합비 작성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

개량 분야에 대해서는 한우 암·수소 동시 개량을 통해 우수한 씨소를 선발해 보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가축의 능력검정기록과 혈통을 바탕으로 개체별 유전능력을 예측하는 “국가단위 한우유전능력평가 기술”을 개발, 1995년부터 한우개량사업에 적용함으로써 한우개량사업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 향후 한우산업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계획은?

한우의 생산비중 사료비의 비중이 50% 내외로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사료비 절감이 시급한 과제로 농촌진흥청에서는 사양체계 개선과 부존사료자원 발굴 및 사료화 기술개발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거세우의 경우 비육기간을 현재 30개월령 이상에서 27개월령으로 단축시키기 위한 비육기술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양질조사료 생산 확대 정책(2011. 10)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답리작 사료작물은 주로 남부지역에서 많이 재배하였으나 향후 중부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이탈리아라이그라스 극조생 품종을 이용하여 재배면적의 확대와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 한우 개량의 주관기관으로서 향후 한우개량의 방향은?

지금까지 한우개량은 고급육생산 위주로 개량되었으나, 미래 소비자의 쇠고기 소비패턴은 변화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는 미래 수요에 대비하여 고급육형, 육량형, 맛형 등 다양한 한우계통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투자대비 효율이 우수한 수소를 대상으로 육량과 육질을 주로 개량해 왔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암소의 수태율과 같은 번식효율을 향상시키는 등 암/수소를 동시에 개량하는 방향으로 개량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 한우농가에게 당부할 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우선 부존사료자원의 최대 이용, 양질조사료 확대생산 등 사료비 절감을 위한 지구노력들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최근 소 값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고급육의 경우는 높은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성장단계별 적정 사양관리에 힘써 주기 바라며, 소 값의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 저능력 암소의 도태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또한 소비자들은 이제 가격보다는 안전성을 최우선시 하고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안전한 한우고기 생산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 드린다.

# 쇠고기 원산지 위반 무더기 적발

## 품관원, 5월 한 달 특별단속에서 142개 업소 조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우협회는 지난 5월1일부터 31일까지 수입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소 142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미국에서 BSE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품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투입해 전국에 걸쳐 실시했다.

1개월간의 단속 결과 총 142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107개소는 형사입건 해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35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유형을 보면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한 경우가 52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산을 국산으로 25개소, 호주산을 국산으로 17개소, 뉴질랜드산을 국산으로 6개소, 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7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품관원은 또 쇠고기 통관 및 검역정보와 쇠고기이력시스템 등을 활용해 수입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추적조사를 실시, 소비자단체를 원산지 단속에 참여토록 해 단속의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 등 원산지위반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쇠고기는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단속에 활용했다.

또한 단속기간 중 소비자단체 소속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단속에 적극 참여 했으며, 11개 소비자단체 임원 20여 명도 쇠고기 DNA분석법 시연을 참관하고 기동단속

반의 원산지단속 현장에 동행하는 등 민간감시 활동을 강화해 원산지 단속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품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142개 위반업소 중 121개소 85%가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에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음식점 등 소비단계와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중간도매상,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익힌 고기·육포·사골 등 쇠고기 가공품도 한우·비한우 여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쇠고기 유전자분석법이 개발됨에 따라 식육가공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해서도 더욱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26일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상습적인 위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원산지표시 위반자의 상호, 주소 등을 농식품부, 시·도 홈페이지에만 공표하던 것을 품관원 시·군, 한국소비자원, 인터넷포털(네이버, 다음) 등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해 누구든지 이번에 거짓표시로 적발된 107개소를 확인할 수 있다.





## 마장동 상인들 안심한우 반대 2달 넘게 투쟁 중

축산유통 1번지 마장동에서 2달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곳 축산물상인들. 이들에게 안심한우와의 갈등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4월 6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 마장축산물시장에서는 농협 안심한우 브랜드의 시장진입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마장축산물시장진흥사업협동조합이 개최한 이날 집회에는 마장동 축산물상인 4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이 시위에 나선 이유는 하나. 조직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영세상인의 터전인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농협의 태도를 규탄하기 위해서다.

농협이 안심한우 협력사인 태우그린푸드, 영진 등을 앞세워 마장동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 상인들의 주장이다. 이날 시위 이후 마장동 상인들은 최근 6층 건물로 새로 오픈한 태우그린푸드의 신사옥 앞에 농성장을 마련하고 2달 넘게 항의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태우그린푸드의 경우 마장동에서 20여년째 육가공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2009년 농협과 안심한우 브랜드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1년에 3,000여마리의 한우를 유통하던 것이 지난해는 6천 마리 이상을 유통하면서 급성장했다.

마장축산물시장진흥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농협이 유통단계를 축소해 한우판매가격을 낮추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검사비용 및 수수료가 붙어 유통비용을 늘리고 있다”며 “거짓 선전으로 소비자와 축산농가 모두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상인들은 대규모 업체의 한우 유통 시장 장악은 상인들의 생존권 뿐 아니라 한우의 안정적 유통망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우육가공 전문업체인 (주)효창의 심판식 대표는 “유

통이 일부 대규모 업체에 편중되면 중소기업 상인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는 상인들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일부 유통거인이 가격과 물량을 좌우할 수 있게 되면 농가들의 입장에서 유통의 요구에 끌려 다니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번영회 강대감 회장은 “대형마트 같은 경우 SSM 규제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일정거리를 유지토록 돼 있듯이 마장동 시장에서도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을 막고, 중소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마장동의 경우 1,600여 축산물 전문상인들이 운집해 있는 곳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의 대표 축산물 시장이다. 그 잇점을 살려 시설을 현대화하고, 환경을 개선해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축산물 전문 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협과 태우그린푸드는 ‘마장동 상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태우그린푸드측은 “시장상인들은 신축건물이 농협 안심한우전문점이라고 인식하는데 사실 육가공장을 확장한 것”이라며 “1층도 ‘농협 안심한우’ 판매점이 아닌 주차장이고 신사옥에 단 간판에도 농협과 관련된 브랜드 로고 하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농협의 관계자는 “태우그린푸드의 신축 건물은 농협의 소유가 아닌 개인 협력업체 사유재산으로 농협에서 직접 나서서 상인들의 불만을 해결해줄 수는 없다”며 “안심한우로 마장동축산시장상인들을 위협하기 위한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 영유아부터 어린이까지 한우로 건강을!!

### 한우홍보 및 원가판매행사 진행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는 한우를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2 서울 베이비 키즈 페어'에 참가해 한우암소 할인판매 및 시식회, 경품이벤트, 한우포토존 등을 진행했다. 임신한 예비 엄마와 영유아를 둔 엄마들이 주 관람객인 베이비페어에서 '가장 안전한 이유식, 한우'를 컨셉으로 젊은 주부들에게 '한우 이유식 레시피'와 '가족과 함께 먹는 한우 레시피' 책자 등을 배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한우 암소도 원가에 판매했다. 한우 암소 등심, 채끝, 안심 등을 5,000원/100g에 판매하고, 불고기, 국거리 등은

2,500원/100g에 판매했다. 특히 이유식용 안심은 금새 동이 나는 등 한우의 안전성에 대한 젊은 주부들의 높은 인기를 실감했다.

또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aT센터에서 열리는 녹색식생활교육박람회에도 참여해 한우를 홍보했다. 녹색식생활교육박람회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들이 우리 먹거리에 대한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로 협회는 안전한 한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 가방꾸미기, 우산 꾸미기 등 체험행사를 통해 한우에 대한 친근함을 형성하고 소비자 대상으로 시식 및 암소 원가판매 행사도 진행했다.

김남배 한우협회장은 "이력제로 믿을 수 있고, 한우농가들이 정성들여 키우는 한우를 통해 우리 아기를 비롯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맛있는 우리한우를 더욱 사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랑의 한우국밥 나눔행사 신청 접수

### 한우농가의 사회공헌 및 사랑 나눔 기대

한우자조금이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가 주관하는 "17만 한우농가와 함께하는 '사랑의 한우국밥' 나눔행사"가 시작된다.

이번 행사는 한우산업이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한우농가들이 어려운 이웃 및 소외계층과 정을 함께 나눔으로써 한우농가의 사회공헌 및 사랑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된다. 또 거동이 불편한 분을 위하여 사랑의 한우국밥 차량이 직접 방문, 나눔을 실천한다.

협회는 국가적 재난상황이나 소외계층 대상 무료급식소, 어려운 이웃이나 기관·단체를 통해 4만5천인분의 한우국밥 나눔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협회 도지회 및 시군지부, 지자체,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사랑의 한우국밥' 행사를 통해 한우산업이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우리주변의 소외계층과 국가적 재난상황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과 함께하는 한우로 이미지 제고와 한우가 민족 산업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전한 우리한우, 믿고 드세요

청소년 맛체험 전국적으로 활발히 진행



5.14 서일중 · 고(충남 서산)



5.25 동성초(충남 논산)



6.1 양양초(강원 양양)



6.8 강원중 · 고(강원 춘천)



6.12 화원고(전남 해남)



6.15 중앙고(강원 강릉)



6.15 장덕고(전남 광주)



6.15 진성여중 · 고(전남 여수)

## 시 · 군지역 소비촉진행사



6.9~10 강화약썩축제(인천 강화)



6.13~14 한우암소 판매촉진 행사(경기 포천)

## 한우 사육두수 증가, 가격 폭락 재발 우려



### 이달 사육두수 307만두 예상, 사상 최고치 웃돌아

지난해 발생한 한우값 폭락사태가 올 연말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한육우 사육두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자 감축에 나섰다지만 사육두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하반기 도축물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 분산 출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9일 한육우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부터 가격하락이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육우 사육두수는 전년 3월보다 2.0%로 증가한 294만두로 6월과 9월에도 두수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육두수 증가는 구제역으로 인한 정책 공급중단으로 수정하지 못한 암소가 지난해 4월부터 수정돼 올해 3월부터 출생되는 시기인데다 계절적으로 8~9월까지 증가되는 시기가 겹쳤기 때문이다. 또 추석명절 출하를 앞두고 있어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가임암소도 125만두로 적정두수인 90~100만두를 초과하고 있어 사육두수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추진하고 있는 '한우암소 감축 장려금 지원사업'의 출하희망 예정시기가 추석 이후에 7만두가 집중되므로 추석 전부터 분산출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0만두 감축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한우암소 감축장려금 지원사업은 6월 현재 8만5천두가 약정돼 추가신청을 받고 있으며 약정농가들은 비육 후 출하를 목적으로 하반기 출하를 희망하고 있어 7만두의 출하시기가 집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우암소 도축비율이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5월까지 9,608두에 그쳤던 암소 도축은 올해 같은 기간 15만 1,724두로 증가했다. 암소감축 장려금지원사업, 할인판매, 한우암소 저능력우 자율도태사업 등의 영향이다.

농식품부는 한육우의 소비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직거래와 할인판매, 추석선물세트 할인판매 등을 실시하고 수입쇠고기의 군납물량을 국산육우로 대체공급 하는것 외에 수요확대를 위해 단체급식용 수입쇠고기를 국산으로 대체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협계통매장과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할인판매행사를 추진하고, 한우고기 추석선물세트 20만개를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한육우 가격안정과 적정사육두수 관리차원에서 한육우 사육농가가 ‘한우암소 감축장려금 지원사업’과 ‘한우암소 저능력우 자율도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석 전 분산출하로 사육두수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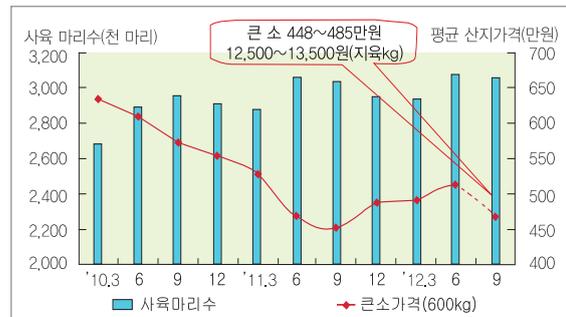
한육우 사육두수 추이

(단위 : 마리)



\*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한육우 사육 마리수 및 가격 전망



## 한우소식 이모저모

### 한우 CF 모델로 김선아 발탁

한우의 우수성 널리 알리겠다



김선아가 한우 CF의 모델로 발탁됐다. 지난 20일 한우자조금은 한우의 CF모델로 김선아를 기용해 7월부터 새로운 광고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한우 광고의 콘셉트는 ‘한우건강백과’로, 김선아는 광고에서 직접 한우를 주제로 한 다양한 요리를 소개하며 한우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강성기 한우자조금 위원장은 “슈퍼알파걸로 불리고 있는 김선아의 이미지가 육류 중 첫째가는 한우의 이미지와 매칭된다는 점에서 김선아를 광고모델로 선정하게 됐다”며 “김선아의 건강한 이미지를 통해 한우 소비를 촉진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도 힘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슈퍼알파걸’이란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최고의 엘리트 여성을 뜻하는 신조어로서 MBC 수목드라마 ‘아이두 아이두’에서 김선아는 ‘슈퍼알파걸’ 역할을 맡고 있다. 한편 이번 한우 TV 광고는 7월 1일부터 방송될 예정으로, 한우자조금은 이번 광고캠페인을 시작으로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 한·중 FTA 저지 비대위 출범

비대위, 미 FTA보다 치명적... 대국민 홍보와 대규모 투쟁 예고

한·중 FTA 저지를 위해 농수축산업 각계가 모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한·중 FTA 중단 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한·중 FTA 저지를 위한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비대위는 한·중 FTA는 한·미 FTA보다 농어업의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고, 이로 인해 식량자급률 하락과 중국산 저질 농수산물 수입에 따른 국민 건강권, 식품안전의 위협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한·중 FTA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한·중 FTA 저지를 위해 대국민 선전 및 홍보와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기로 했으며, 다음달 초 제주도에서 있을 한·중 FTA 2차 협상 개시일에 맞춰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



비매품 제8권 제30호 통권 제80호 발행일 2012년 6월 25일 발행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_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60 커피이화관 3층 TEL. (02)522-4292~3 FAX. (02)522-3605 발행처 전국한우협회\_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TEL. (02)525-1053 FAX. (02)525-1054 편집·인쇄 탐미디어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전재할 수 없습니다.

## 애독자 코너

이 질병은 소의 만성 소모성 전염병으로 제 2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된,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이 질병은 미열, 식욕부진, 체중감소, 쇠약, 간헐적인 마른기침, 체표면 림프절의 종대 등이 관찰되기도 하지만 잠복기간이 길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도축될 때까지 감염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농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병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이 개정되어 도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인 이 질병은 무엇일까요? 한우자조금 소식지 6월호 6~8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우편엽서 접수도 가능하오니 아래 접수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전화번호도 같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게재하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송아지 설사예방약을 드립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우편엽서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소식지 담당자 앞

## 당첨자

5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박길택(대전 서구), 이훈재(충남 청양군), 정복선(경북 영천시), 이경근(전남 순천시), 김두환(경북 군위군), 박재민(경기 남양주시)

## 인증점 소개

천혜우

전화 : 063-858-6492  
주소 : 전북 익산시 할라면 금성리 535-2

풍광 좋은 익산시 할라면에 동지를 틀고 있는 한우판매인증점 천혜우는 입맛 까다로운 고객

을 사로잡기로 유명하다. 천혜우는 ‘하늘의 은혜를 입은 소’라는 뜻으로, 이름에 걸맞게 1등급 이상의 한우 암소만을 제공한다. 저온숙성한 암소의 탱탱하고 부드러운 맛에 놀라고, 장수곱돌 불판으로 구워 먹는 특유의 고기 맛에 또 한번 놀란다. 우렁이농법으로 수확한 쌀과 직접 짠 참기름 등 식재료는 월빙 그 자체다.





##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발생에 따른 대응과 한우 소비촉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한우의 안전성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와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신문 광고 등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 ■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발생에 따른 소비자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 한우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 한우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 ‘금요일은 한우먹는 날’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 암소물량 줄이기에 주력하겠습니다.

- 암소위주의 할인 판매행사와 소비촉진 행사시 암소 위주의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농·축협 및 대형 유통업체와 전국적인 할인행사로 한우값 안정과 소비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